산업통상자원부
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보 도 자 료

희망의 새시대
http://www.motie.go.kr

2013년 8월 13일(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: 지역투자팀 김미애 팀장(2110-5091), 이헌두 사무관(2110-5094)

TV 드라마, 지역·중소기업을 그리자

- 산업부, 드라마 제작관계자들과 지역·중소기업 인식개선 간담회 개최 -

□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만기 산업기반실장 주재로 드라마 PD, 작가 등 TV 드라마 제작관계자들과 "지역·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TV 드라마"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함

○ 간담회를 통해 참석자들은 지역·중소기업에 대한 사회 전반의 부정적 인식에 대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, 인식개선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TV 드라마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였음

< 간담회 개요 >

◈ 일시·장소 : '13. 8. 13(화), 여의도 렉싱턴호텔 유니온스퀘어
◈ 주최 : 산업통상자원부
◈ 참석자 : 산업부 산업기반실장, 산업부 지역투자팀장, PD 및 작가 등 드라마 제작관계자(8명),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단장 등 총 15명

□ 최근 방영되는 대부분의 드라마에서 기업 관련 내용은 서울·대기업 위주로 그려지고 있으며, 지역·중소기업 또는 기업인, 종사자 등을 소재로 하는 드라마는 거의 없음

○ 드라마속 주인공은 서울의 대기업에 종사하거나 재벌 2세인 경우가 대부분이며, 중소기업을 배경으로 하는 일부 드라마에서는 종사자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등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음

◈ (사례1) A드라마의 주인공은 영세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며, 낮은 연봉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캐릭터로 그려짐
◈ (사례2) B드라마에서 다루어지는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횡포에 당하며 불안한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려짐

□ 많은 중소기업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사회전반에 존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구직자들이 취업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음

○ 특히, 수도권 대기업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인해 지역·중소기업들은 대기업 못지않은 급여와 복지혜택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, R&D 인력 등 우수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

○ 한 지역기업의 인사담당자는 "지방 대졸자 셋 중 하나가 수도권 기업으로 유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. 회사의 비전을 설명하고 대기업 평균이상의 연봉을 제시해도 인재채용이 쉽지 않다."고 밝힘

□ 정부는 '11년부터 지역청년들이 지역우수기업을 탐방하여 직무현장을 체험하고, 구직자 눈높이에 맞춘 기업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SNS 등을 통해 공유·확산하는 사업(희망이음 프로젝트)을 추진하여 지역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에 성과를 거두고 있음

○ 이러한 정책적 노력과 더불어 대중들에게 광범위한 전달효과를 가지는 드라마에서 지역·중소기업과 기업인, 종사자를 소재로 하는 성공스토리 등이 다루어진다면 사회적 인식개선에 큰 효과 있을 것으로 예상됨

□ 정만기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"드라마는 시청자의 삶과 의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,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."고 강조하며,

○ "드라마에서 우리 경제와 일자리의 주역인 지역·중소기업을 긍정적으로 그리는 사례가 많아진다면, 이들 기업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변화에 큰 도움이 될 것"이라고 밝힘

□ 간담회에 참석한 한 방송국 PD는 "TV 드라마는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자, 한 발 앞서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나간다."고 강조하며,

○ "90년대 트렌디드라마가 진취적인 커리어우먼 묘사를 통해 여성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에 기여했듯이, 지역기업과 중소기업을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를 통해 가랑비에 옷 젖듯 긍정적 인식변화를 확산할 필요가 있다."고 말함

OPEN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지역투자팀 이헌두 사무관(☎ 02-2110-509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